

2026학년도 도내 수능 응시자 1만7935명

재학생 · 검정고시 출신 늘고 졸업생은 감소… 언매 · 미적 · 과탐 응시자 줄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지역 지원자는 총 1만7,935명으로 지난해보다 894명 늘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재학생은 1만3,592명(77.8%), 검정고시 출신은 616명(3.4%)으로 전년 대비 각각 998명, 78명 증가했고, 졸업생은 3,727명(20.8%)으로 지난해보다 182명 감소했다. 졸업생 지원자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2.1%p) 줄었으나 여전히 20%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9,158명(51.1%), 여자 8,777명(48.9%)으로 남학생이 381명 더 많았다. 선택과목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영역은 화법과작문 1만3,674명(76.2%), 언어와매체 4,117명(23.0%)으로 화법과작문 과목 선택자 비율이 3배 이상 높았다. 화법과작문 선택자 비율은 4.8%p 증가한 반면, 언어와매체는 5%p 줄어 과목 간 격차가 더욱 커졌다. 수학영역은 확률과통계 9,474명(52.8%), 미적분 7,362명(41.0%), 기하

455명(2.5%)으로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지원자가 가장 많았다. 확률과통계는 전년 대비 8.6%p 증가했으나, 미적분은 같은 비율만큼 감소해 확률과통계 선택자가 처음으로 미적분 선택자를 앞섰다. 영어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만7,514명(97.7%)이 선택했다.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영역 9,317명(51.9%), 과학탐구영역 4,944명(27.6%), 사회·과학탐구영역 3,094명(17.3%), 직업탐구영역 96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사회탐구영

역과 사회·과학탐구영역이 각각 6.5%p, 6.3%p 증가했으며, 과학탐구영역은 13.2%p 감소해 사회탐구영역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2,744명(15.3%)이 선택해 지난해보다 0.3%p 늘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과목별 지원자 변동으로 성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올해는 고3 수험생 증가로 인한 대입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며 “수험생들은 지원대학 전형성을 꼼꼼히 살피고, 남은 기간 자신의 입시 전략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복합소재 구조물 비파괴 검사 수행

로스알라모스研, 미국 전력연구소 과제 협약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소장 강래형, 유연인·소재전공학과 교수)가 최근 미국 전력연구소(EPR)와 용역과제 협약을 체결, 복합소재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합소재의 경우, 내부 결함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세계 수준의 비파괴 검사 기술을 가진 우리 대학 연구소에 시험 평가를 의뢰했다. 강래형 소장은 “우리 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파괴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

력으로 에너지, 항공우주, 국방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는 기계, 전자, 탄소소재, 유연인·소재전공 소재, 3D 프린팅 등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연구를 수행 중이다. 특히 스마트 센서 기술, 복합재료 기반 소재 기술, 신호처리 및 제어 기술, 딥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구조 건전성 관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형 글로벌 인턴십 연수를 운영한다. 사진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사업단이 지난 5일 호주 시드니로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 출국하는 모습이다.

도내 직업계고 학생, 글로벌 취업 경쟁력 키운다

전북교육청, 현장실습형 글로벌 인턴십 연수 운영

전주생명과학고 등 도내 6개 학교 사업단 참여

원예조경 · 기계가공 · 마필관리 등 7개 직무 분야

전북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형 글로벌 인턴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전주생명과학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북유니텍고, 전주공업고 등 도내 6개 학교 사업단에서 학생 58명과 인솔교사 12명 등 총 70명이 참가한다. 앞서 남원제일고, 덕암정보고, 전주

생명과학고 사업단은 지난 5일 호주 시드니로 출발해 오는 10월 18일까지 이뤄진다. 이어 한국경마축산고 사업단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11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전북유니텍고 사업단은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전주공업고 사업단은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각각 연수를 진행한다. 현장실습은 원예조경, 전기전자, 기계가공, 조리제빵, 애견훈련, 헤어미용, 마필관리 등 7개 직무 분야를 중

심으로 운영된다. 호주 시드니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TAPE NSW 시드니 기술교육기관에서 언어·직무교육을 받은 뒤 Honeysuckle Garden, Holiday Paramatta, Courtyard by Marriott Sydney, En Vogue hair 등의 기관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은 현장실습형으로 설계돼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글로벌 인턴십은 학생들의 국제 직업 역량을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글로벌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신규 임용

직원에게 임명장 수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8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신규 직원 인사 발령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신규 임용된 김시원(시설8급), 김혁권(행정9급)은 총무처 근무를 명 받았으며, 향후 대학의 행정 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 전반에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로컬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지난 5일 서울 성수 헤이그라운드에서 로컬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육성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육성 DAY’를 위해 총 10개 팀(전주대학교 경영학과, 로컬벤처학부, 산업공학과, 반려동물학과 등 재학생 참여)이 참여해 지난 2개월간 아이디어 피칭과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거쳐 각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이 중 ‘종합영양제 영양강(다드론)’과 ‘전주의 골목을 감성 스토리로 재해석한 물임형 여행 콘텐츠’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RISE 사업단

원예치료복지협회와 협약

전주기전대학 RISE사업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5일 부안캠퍼스 화동치유농장에서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회장 유용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3-2 Track J-커뮤니티 캠퍼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치유농업과 복지원에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치유복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부안군은 치유농업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지역 특화형 힐링산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복지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요양원, 병원, 복지관 등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AI로 교사 행정업무 줄인다

전북교육청, AI 기반 업무지원도구 ‘서.비서’ 운영 본격

PC · 모바일 사용 가능… 맞춤형 서식 작성 효율성 향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원 업무지원도구 ‘서.비서’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비서’는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중등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장 교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는 자연어로 질문하면 행정 메뉴얼을 즉시 찾아주고, 관련 서식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웹 기반 AI 서비스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조사해 디지털화해 놓은 ‘서식편의점’, J메신저와도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다. 모든 답변은 전북교육청이 공식 보유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교사가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기획·학교 안전·학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 초안을 자동

으로 생성할 수 있어 맞춤형 서식 작성의 효율성도 크게 높였다. 무엇보다 챗봇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사용자가 행정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대화하듯 답변해주는 기능이 탑재됐다. 사전 테스트에 참여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는 “예전엔 업무 매뉴얼을 찾아려면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해서 번거웠는데, 이제는 ‘서.비서’에 질문만 입력하면 바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이용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매뉴얼 검색은 물론 서식까지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행정업무 시간이 확 줄었다”며 “그만큼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비서’는 교사의 반복적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도구”라며 “이를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6일 사범대학 과학관에서 ‘2025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교육 연구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과학꿈나무 키움교육 연구성과 발표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서… 수학·생물 등 성과 공유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덕호)은 지난 6일 사범대학 과학관에서 ‘2025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교육 연구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1명의 지역 초등학생이 참여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주말 교육, 여름방학 집중교육, 야외조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미래 과학도로서 역량을 키웠다. 발표대회는 참여 학생들이 수행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범대와 자연과학대 교수진의 지도로 수학 분야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를 비롯해 생물 분야 ‘전주천 생태계와 보존 방안’, 지질 분야 ‘한반도 지구조 진화와 전북 지질 구조’, IT융합 분야 ‘파이썬 기반 드론 군집 비행’ 등 4개 분야에서 지난 활동들을

소개했다. 특히 IT융합 분야는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협력해 수준 높은 성과물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덕호 원장은 “전북 과학꿈나무 키움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발표하며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린 과학 인재들이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 사범대 과학교육연구소 내 ‘과학영재교육센터’로 설립돼 2002년 전북대 부설기관으로 승격됐다. 올해로 28년째를 맞은 이 교육원은 지금까지 5,538명의 학생을 배출하며 전북지역 과학영재 교육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